2020학년도 이상우 모의평가 시즌1 제0회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이상우 모의평가] 안내

1. 시즌1 제0회 안내

독서: 시즌1 제1회 포함
문학: 시즌1 부록 EBS 변형 N제 포함

시즌1 제0회는 20분 이하의 시간을 재고 풀어주세요.
스테이플 왼쪽에 두 방 찍고 넘겨주시면 시험지 느낌이 날 것입니다.

0회를 푸시고 시즌1을 구매하실 경우, 시즌1 제1회에서 해당 장문 독서 지문을 제외하고 70분 이하의 시간을 재고 풀어주세요.

2. 시즌 구성

시즌 1: 6모 대비
-2019학년도 수능 난이도 및 기조 반영
-EBS 수능특강 화법/작문/문학: 직접 연계
문법/독서: 비연계&간접 연계
-EBS 수능특강 문학 변형 문항 부록 제공

시즌 2: 9모 대비
-2019학년도 수능 난이도 및 2020학년도 6모 기조 반영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화법/작문/문학: 직접 연계
문법/독서: 간접 연계
-EBS 수능완성 문학 변형 문항 부록 제공

시즌 3: 수능 대비(파이널)
-2019학년도 수능 난이도 및 2020학년도 6모 & 9모 기조 반영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화법/작문/문학: 직접 연계
문법/독서: 간접 연계
-EBS 수능특강 & 수능완성 수록 못 한 나머지 작품 부록 제공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학(疫學)이란, 특정 집단의 건강과 질병 상태의 분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역학적 연구 과정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단면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가 있다. 단면연구란, 질병과 특정 요인 노출에 대한 정보를 짧은 기간 내에 ⓐ얻는 연구이다. 단면연구는 특정 집단에서 질병의 유병률*, 혹은 요인 노출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질병과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면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도 여러 질병과 노출에 대한 가설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의 정보가 다른 연구에 비해 특정 집단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질병과 요인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환자-대조군 연구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각각 연구 대상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하고, 질병 발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두 집단의 노출을 비교하여, 특정 요인과 질병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환자-대조군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귀한 질병을 연구하기에 용이하며, 한 가지 질병에 대해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요인에 대한 과거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매우 쉽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요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A] 코호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 중 연구 시작 시점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질병의 발생을 관찰하는 관찰 연구이며, 코호트 연구에서 추적 대상이 되는 단일 집단을 코호트라고 한다. 코호트 연구는 세 연구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코호트 연구 방식은 연구 시작 시점에 따라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후향적 코호트 연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란, 연구 시작 시점에 정의된 한 코호트 안에서 특정 요인에 대한 노출이 있는 노출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을 정의한 뒤, 연구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이다. 한편, 후향적 코호트 연구란 요인에 대한 노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단일 코호트에서 유래한 사람들을 연구 시점에 찾아 조사하여, 현재 시점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두 연구는 연구의 시작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단일 코호트에 소속된 사람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학적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연구 방법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비교 위험도와 오즈비를 많이 이용한다. 비교 위험도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질병 발생률을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질병 발생률로 ⓓ나눈 값으로, 특정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은 해당 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요인에 대한 어떤 질병의 비교 위험도가 2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사람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정 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특정 노출에 대해 질병 발생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일 집단에서 환자의 비율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군과 대조군을 별도의 집단에서 모집하는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를 산출할 수 없고, 대신 비교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오즈비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오즈란, 특정 집단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그렇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 통계적 수치이다. 오즈가 1보다 클 경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군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이 존재할 오즈와 대조군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이 존재할 오즈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환자군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이 존재할 오즈를 O_1이라 하고, 대조군에서 요인에 대한 노출이 존재할 오즈를 O_2라 할 때, 오즈비는 O_1/O_2로 정의할 수 있다.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오즈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고 환자군과 대조군이 각 모집단의 성질을 잘 대표하는 경우, 오즈비를 통해 환자군과 대조군을 모두 포함하는 모집단의 비교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학적 연구 과정에서는 특정 집단의 건강과 질병 상태의 분포,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연구자는 일반적인 통제 실험과는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는 역학적 연구의 특성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역학적 방법들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병률: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학 연구는 어떤 집단의 건강과 질병 상태의 분포에 대한 연구이다.

② 단면연구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집단의 건강과 질병 상태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단면 연구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④ 동전을 던질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면, 앞면이 나올 오즈는 1이다.

⑤ 역학적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수집한 특성들의 시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통계적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 대해 환자군과 대조군을 잘 선정하였다면, 오즈비를 통해 모집단의 비교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다.

②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특정 요인 X에 대한 질병 Y의 비교 위험도가 0.5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요인 X는 질병 Y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특정 질병 X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비교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선, 질병 X에 대한 단면연구 결과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특정 요인 X에 대한 질병 Y가 발생할 오즈비가 2라는 결론을 얻었다면, 이 요인 X는 질병 Y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⑤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를 산출할 수 없다.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0년 전 진행된 단면연구에서 요인 X에 대한 노출을 조사한 적이 있는 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요인 X에 대한 질병 Y의 발생률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1,000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 집단에서 질병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이었다.

① 연구 시작 시점에서 질병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것은 단면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경우, 과거에 시행한 단면연구 결과는 관찰하고자 하는 요인에 대한 과거 기록으로써 활용될 수 없다.

③ 이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은 연구 대상이 되는 코호트이다.

④ 이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연구 대상 코호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인 X에 대한 노출 역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이 연구 대상자들을 통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다면, ㉡은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에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뒤, 이후 30년간 폐암 발생과 암 혹은 만성질환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추적하여 관찰한 연구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②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어떤 약물 X를 처방받은 사람들에서 특정 질환 Y가 예방되는지를 확인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③ 20년 전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파병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④ 한 병원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소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량과 대장암 여부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⑤ 혈액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 X가 특정 질환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중 X 수치가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역학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값과 측정한 값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하며, 무작위 오류와 체계적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무작위 오류란,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오류를 일컫는 반면, 체계적 오류란,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오류를 일컫는다.

두 군을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과정에서, 체계적 오류가 특정 군에만 편향되게 나타나는 경우를 특별히 바이어스(bias)라고 정의하며, 바이어스는 그 원인에 따라 선택 바이어스와 정보 바이어스로 다시 나누어진다. 선택 바이어스란, 모집단에서 연구 집단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집단이 모집단의 성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바이어스를 말한다. 반면, 정보 바이어스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측정 오류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바이어스이다.

사용하는 역학적 연구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 특정 요인 X에 대한 노출이 질병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서, 기계적 측정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는 정보 바이어스이다.

② 특정 요인 X에 대한 노출이 질병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서, 요인 X에 대한 노출이 매우 개인적인 사안이라 요인 X에 노출된 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는 정보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임산부의 특정 약물 X 복용이 태아의 질병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서, 질병 Y를 가진 태아의 부모가 특정 약물 복용 여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선택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특정 요인 X에 대한 노출이 질병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전체 인구 집단에서 자원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할 경우, 선택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요인 X와 질병 Y를 모두 가진 사람의 경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한다면, 이는 특정 요인 X에 대한 노출이 질병 Y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에서는 무작위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6.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 체득(體得)하는

② ⓑ: 공존(共存)하나

③ ⓒ: 상당(相當)하지만

④ ⓓ: 감(減)한

⑤ ⓔ: 희박(稀薄)하고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질을 찾어왔능가?"

꼭 울어 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햇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른 식구덜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잡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헐 디로 가소."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헐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그서 이러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겄능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겄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혀야지. 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매나 가슴이 미어지겄능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 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중략)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애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헐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매나 수고시렀으꼬."

"인자는 다 지난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혔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펜안히 거처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툭툭히 허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 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댓 숟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흥길, 「장마」 -

*충그리다: '머물러서 웅크리고 있거나 머뭇거리다'라는 의미의 방언.
*구완: 아픈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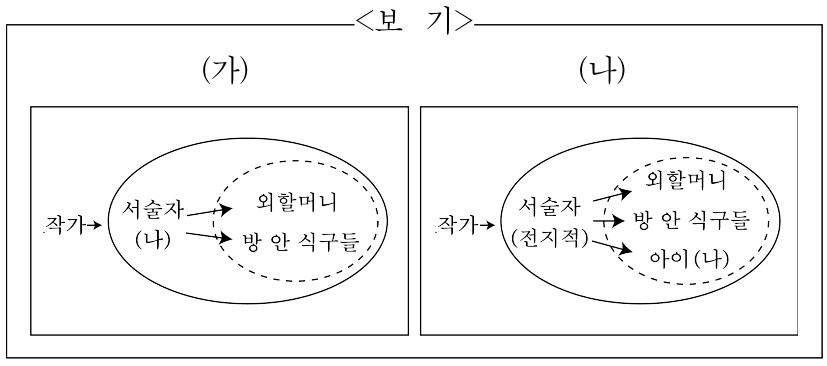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러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다.
④ 우화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

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① 아이도 마음속으로 나의 모든 걸 용서했다.
② 아이도 마음속으로 나의 모든 걸 용서하는 듯했다.
③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하는 듯했다.
④ 아이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⑤ 아이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하는 듯했다.

9. <보기>를 참고할 때, 구렁이 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민간신앙은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민족 고유의 전통을 대변한다. 이를 통해 폭력적 근대가 만들어 낸 분단의 현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야기한 폭력적 근대의 현실에 무방비상태로 놓인 당대의 민중들에게 민간신앙이 치유와 위안의 신앙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배제되었던 민간신앙이 전통담론의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해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장마」는 이처럼 문학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시대에 대항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① 구렁이는 한 집안에 발생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려진다.
② 구렁이는 할머니에게 삼촌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치유와 위안을 안겨다 준다.
③ 구렁이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정서적 화합인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④ 민간신앙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근대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환기시키면서 폭력적인 근대를 비판하게 한다.
⑤ 구렁이를 할머니가 기다리던 삼촌의 현신으로 여겨 대접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10.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장마」는 분단이 남긴 민족의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하는데, 이때 민족은 '나'의 가족으로 비유된다. '나'의 삼촌과 외삼촌은 각기 다른 이념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장마」에서는 가족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이 도출되어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② 전쟁을 겪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음을 나타낸다.
③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을 드러낸다.
④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었음을 나타낸다.
⑤ 현재의 '나'가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역전적으로 구성했음을 나타낸다.

11. ⓐ~ⓔ 중 갈등 해소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

2020학년도 이상우 모의평가 시즌1 제0회 정답지

1	③	2	④	3	③	4	④	5	④
6	⑤	7	③	8	④	9	②	10	④
11	④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3. 출제

이상우
-전 이승모 국어 연구소 현강 연구원
-전 김승리 국어 연구소 인강 Q&A
-전 사설 모의고사 검토위원

김가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형모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사 졸업 / 석사 과정 중
-Final Lecture / Wabu 모의평가 저자

이기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 감수/검토

이승모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현 대치/분당/대전 비전21 출강
-전 도서출판 홀수 연구원

김기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김동훈
-2019 6모 99% / 9모 98%

김범진
-고려대학교(서울캠퍼스)

남궁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박규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의예과

박솔해
-경희대학교 철학과

손현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016 수능 A형 100점 / 2017 수능 96점

서주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018 6모 & 9모 & 수능 100점

이융희
-서울대학교 화학부 / 전기정보공학부 복수전공

이지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찬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2018 수능 100점

이희진
-NYU Stern

임수민
-현자의 돌 모의고사 저자

임준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019 수능 97점

천우진
-국어의 명작 검토 예정

최수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오르비 국어 출판 계약

이 문제지는 2019년 1월 23일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이상우에게 있습니다.